

“불교 유치원, 미래 불교 위한 투자”

불교 영유아 교육 활성화 과제는

서울 종로구로 출퇴근하는 불자 A(女·38)씨는 올해 직장 인근 유치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입학 포기했다. 종일반을 맡아 줄 유치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가다 들리는 조계사를 보며 “사찰에서 불교 유치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시로 한다.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라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A씨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를 믿고 맡기기에는 종교계 유아 시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있는 영등포 근처 교회에서는 유치원을 대부분 운영해요. 그렇다고 불자인 제가 아이를 기독교 유치원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유치원도 이미 특화된 인성 교육 등으로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렇다면 전국에 불교계 유치원의 현황은 어떻게? 지난 2006년 (사)동면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64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 관련 어린이집은 279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사찰이나 불교 복지관이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형태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색채를 가질 수 없다. 불교적 심성을 영유아 시기부터 가지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교종립 유치원’이다.

특화된 인성교육이 ‘강점’
 불교종립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최대 장점은 특화된 인성교육이다. 불교종립에서만 할 수 있는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청도 운문사가 운영하는 부설 운문유치원으로 2012년 교육부가 선정한 우수 인성교육 유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은 다도명상과 가야금 등 전통악기를 이용한 음

교육을 비롯해 운문사 수목원에서의 숲 체험활동, 유아 체육, 영어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원아들은 매일 어린이 생활 오계 실천을 다짐하며 연말에는 졸업식과 수계법회를 함께 진행하며 회향한다.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 연비의 식대신 꽃비로 대체해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입학 ‘로또 당첨’
신뢰가는 종립 유치원 선호
인성 특화 프로그램 강조
불교 유치원 강점 ‘충분’

미래 투자라고 생각하며 사찰서 유치원 설립해야

여기에 유치원 건물도 현대적인 디자인에 최신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지역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2008년 개원 당시에는 제31회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치원은 아니지만 여주 신륵사가 운영하는 부설 연꽃어린이집도 지역 사회에서 호평을 받는 보육시설이

다. 원장 혜운 스님이 아이들에게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짧막하게 들려주고 1분 정도의 짧은 명상도 병행하며 다종을 유도하는 등 재미있게 불교를 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노력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신륵사와 함께 하는 동자승 체험의 경우에는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륵사 연꽃 어린이집 담당 교사는 “동자승 체험의 경우 1주일간 절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의젓해지고 안먹던 야채도 먹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늘 합장 인사시키는 등 기본 예절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쓰다보니 아이들이 ‘예절이 바르다’고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에도 노력 필요해

불교 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유치원 건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쉬움이 없다. 아이를 당장 불자로 만들 수는 없더라도 불교적 심성을 가진 인재로 양성하는 것도 불교에는 중요한 미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장 도진 스님은 “영유아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게 하는 것은 불교적 심성을 가지게 해 바른 인재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사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이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보육교사 양성도 불교 유치원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현재 불교계 유아보육교사 양성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불교유아보육학과와 유아교육학과가 유일하다. 두 학과에서 매년 배출하는 졸업생은 65명 남짓이다. 이들이 불교 유치원에서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경 동국대 불교유아보육학과 교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 인력은 필수”라면서 “불교 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좋은 인재를 불교 유치원에 영입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불교 아동교육연구소가 있어 불교 유아교육 지도자, 교사에 대한 재교육 연구가 이뤄졌으나 지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종단에서 유아 교육을 위한 전담 연구소를 만들어 일선 교사들의 재교육을 담당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배현진 기자

시멘트에 갇힌 석굴암 앞 석등 하대석

보호각 보수 하며 시멘트 구조물로 덮어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경주 석굴암 보호각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석굴암 석등 연화문하대석을 시멘트 구조물로 덮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석굴암은 최근까지 보호각 보수공사를 위해 철골구조의 가설 덧집으로 덮여 있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가설 덧집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1m 두께의 콘크리트 바닥을 다졌다. 이 콘크리트 바닥 구역에는 석굴암 앞의 석등 하대석의 위치도 포함됐다. 시공사는 석굴암 석등 하대석 부분을 남긴 뒤 주위를 콘크리트 덧집 기반으로 만들었다. 현재는 뚜껑을 덮어 하대석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석굴암을 찾은 강우방 前국립경주박물관장은 “석굴암 석등은 석굴암의 전체 구조물 중 일부”라며 “보호각을 보수하긴 해야 하지만 굳이 하대부에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어 석등의 하대석을 묻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승 스님은 “처음 석굴암 가설덧집이 세워질 때부터 문제를 지적했다”며 “지반 약화, 진동 등으로 석굴암에 영향이 갈 것이 분명한데 굳이 강철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구조물의 시멘트 부분은



시멘트 구조물에 갇힌 석굴암 석등 하대석. 현재는 뚜껑이 덮혀있다.

석등 하대석도 석굴암 일부 보수 이유로 매몰 ‘어불성설’

제거할 때 석굴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공사가 완료돼 가설 덧집을 제거한 상태며, 시멘트 구조물은 연내 철거할 예정이다.

공사를 담당한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관계자는 “현재 석등 하대석은 나무로 덮은 다음 보호조치를 취하는 상태”라며 “보호각 보수는 가설 덧집이 필요”라며 “진동을 최소화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석굴암의 영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심담은 핫팩으로 따뜻한 군생활을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12월 10일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에게 핫팩을 나눠주고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2월 10일 전군 77개 부대에 핫팩 25만개와 위문품을 전달했다. 정우 스님은 “혹한의 날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여러분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게 군생활을 하길 기원하는 불자들이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이제 2월 28일 임기가 끝나면, 비록 제 몸은 떠나도 마음은 언제나 모교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동국 발전을 위해 애써주

김희옥 총장, 18대 총장후보 전격 사퇴

이사회 뜻 반영, 보광 스님과 조의연 교수로 후보 압축

동국대 제18대 총장 후보자로 나선 김희옥 현 총장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김희옥 총장은 12월 11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지난 4년간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고 대학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책임의 뜻을 가지고 모교 발전을 위해 한번 더 봉사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종립대 총장직은 1회로 한 정함이 좋고 연임은 적합하지 않다는 중대 내외의 뜻을 받아들여 책임의 뜻을 철저히 하고 제18대 총장 후보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28일 임기가 끝나면, 비록 제 몸은 떠나도 마음은 언제나 모교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동국 발전을 위해 애써주

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총장의 결정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중대 고위직 스님들과의 오랜 회동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스님은 본지와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 총장으로 수고했고, 앞으로 정부 고위직을 맡게 되면 계속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 “이사 스님이 더 봉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후보를 사퇴함에 따라 동국대 이사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보광 스님과 조의연 교수 2명 가운데 1명을 18대 총장으로 선출한다.

노덕현 기자

총장 선출 관련 차주 상보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경력기자	각	① 경력기자 2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서류전형	필기시험
수습기자	0명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면 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4년 12월 31일(수)까지
- 접수방법: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2004-8204)

2015 마음 다이어리

열두 달 마음 농사의 풍경과 대행 스님의 법어가 함께하는

산뜻한 연둣빛 표지로 새롭게 출시된 2015년 다이어리에는 대행 스님의 말씀과 박희진 작가의 그림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는 공간-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하루하루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판매처: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구입가: 13,000원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품 상세보기: 「한 그루의 숲」 검색 → 「숲속가게」 클릭

그림: 박희진